조계사, 보살계 수계법회 "지계·정진" 다짐

4월 21일, 1700명 수계제자 동참
전계대화상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육바라밀 실천해 괴로움 벗어나길"
과오 참회 기원하며 꽃비 내리기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증명법사스님들은 법회 동참자들에게 꽃비를 뿌리며 과오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마흔여덟 가지 경구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위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계를 받아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조계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청정한 삶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사는 4월 2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금강계단 대승 원력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조계사 보살계 대법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이 교육아사리를 맡았으며, 조계사 어린이회와 중고학생회를 비롯한 17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대승보살의 수지 계율인 보살계를 수지하고 끝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수계제자들에게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했다. 진우 스님은 "수계는 진정으로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이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해탈할 수 없다"며 "계를 어기면 인과가 따르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분별이 있으면 계를 범하게 된다. 고락이라는 두 가지 마음은 항상 낮과 밤처럼 같이한다. 극락과 지옥 육도윤회를 하면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근심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보살은 계를 지키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괴로움 받지 않는 가장 모범적 대상이다. 때문에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행동으로 계를 지키는 보살과 닮아가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며 "완전히 계를 지켜 '지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수계를 받는다는 것이 보살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오늘 수계를 통해 다시 한 번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발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수계제자들을 대표해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 총신도회장과 박영환 자문위원장, 이충훈·최미소 청년회원에 계첩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날 무수히 지어온 잘못을 참회하는 참회과법 의식도 열렸다. 수계제자들이 참회진언을 염송하는 동안 증명법사스님들이 머리 위로 꽃비를 뿌리며 과오를 참회하고 계를 받아 청정하게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회장은 찬서를 통해 "대덕스님들이 오늘 주신 가르침과 정수를 털끝만큼도 어기거나 잊지 않고 뼈 속 깊이 새겨 이 땅을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소윤 조계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계제자들은 더욱 견고한 지계정신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선명상 강좌 '봇물'… 마음 평화 찾아볼까

불교인재원, 황룡원 중도타워서
2박3일 '힐링 선명상 캠프' 개최
인재원 · 흥국사 입문 강좌 개강도

선명상을 직접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명상 강의와 명상 템플스테이, 도반들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명상캠프 등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경주의 새로운 불교문화 중심지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힐링 선명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2박 3일 코스로 8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캠프에서는 박희승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불교인재원 이사)을 비롯한 명상지도사들이 강사를 맡아 부처님이 깨친 중도와 선명상 원리를 강의한다. 걷기명상, 좌식명상 등 다양한 명상 실습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석굴암 부처님 참배와 함께하는 일출명상과 황룡사 9층 목탑지에서 진행되는 낙조 명상 등 특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환희로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선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비용은 일반인 16만원, 학생 12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카페 '생활 선명상'이나 문자(010-4050-5969)로 하면 된다.

선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강좌도 개강한다. 불교인재원은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종로 열린선원에서 '생활 선명상 제20기 입문코스'를 연다. 불교인재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당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지난해 대면강좌로 전환했는데, 호응이 높아 이번 강좌도 대면으로 열게 됐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과 정혜경·백희인 생활참선 명상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을 교재로 중도와 정견, 화두 참선, 선명상 기초를 지도한다. 수업 6주차인 6월 22~23일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화두 수련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의 삼서근 화두를 일러준다.

고양 흥국사에서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선명상 입문과정 11기'가 시작된다.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공부하고, 화두를 받아 명상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연기, 무아와 정견 세우기 △참선이란 무엇인가 △생활에서 참선하는 법 △화두선의 수행체계 △소감 함께하기 등 총 8강의 교육이 준비돼 있다. 6월 15~16일에는 흥국사에서 1박 2일 동안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흥국사(02-381-7970)로 하면 된다.

박희승 이사는 "힐링 명상과 참선·간화선의 장점을 적절히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성과 불교 본래 가치를 잘 살려 '선명상' 대중화에 일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지원

연등회 등 봉축행사 활성화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기 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 원만 회향을 발원하며 정성을 보탰다.

진흥원은 4월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에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볼 때,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눠왔던 불교 정신을 오늘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처럼 불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연등회' 등 봉축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황영웅 팬들, 난치병 환아에 자비나눔

4월 23일, 생명나눔에 500만원
혜공 스님 "공덕 수승한 기부"



가수 황영웅 팬들이 난치병 어린이 지원에 나서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한다.

황영웅 공식팬클럽 '파라다이스' 서울북부지역모임은 4월 23일 서울생명나눔실천본부에 방문,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가수 황영웅은 지난해부터 '스타투표 리매치'를 통해 총 3540만원을 생명나눔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지원에 기부하며 꾸준한 선행을 실천해 왔다. 이번 팬클럽 '파라다이스'가 지원금을 기부하면서 가수 황영웅의 다양한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팬클럽 회원들에게 "아름답고 공덕이 수승한 기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경주 불국사·석굴암, 동국대에 1억원

경허록, 만공법어 편찬사업 지원
성행 스님 "자료 재정비에 힘"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와 석굴암(주지 종상 스님)이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발자취 연구 및 전산화 구축에 힘을 보탰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4월 22일 서울 동국대 4층 총장실에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 산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자료집 편찬 및 연구를 비롯해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불국사를 대표해 참석한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경허 선사의 사상과 발자취, 법어 등 다양한 기록들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전달했다"며 기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